

### 붓다의 물리학 2. 8원소 기본물질

# 눈 귀 코 혀 등 자극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문제

견고성, 응집성, 열성, 이동성 등의 사대성품은 물질이 있는 곳에 항상 존재한다. 이 네 가지 성품 이외에도 “파생된 물질(우빠다루빠)이라는 24가지 물질(루빠)이 있다. ‘앗타살리나’ (2, 2권, 3장, 305)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사대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파생된 물질들은 사대에 의지한다.”

이같이 파생된 물질은 사대 없이는 생길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파생된 물질이 모든 물질무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파생된 물질들 중의 네 가지는 물질무리가 일어날 때마다 사대성품과 함께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이들은 몸 밖에 있는 물질이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든, 물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존재한다. 이 네 가지 물질은 다음과 같다.

#### 색깔 냄새 맛 영양소

항상 함께 일어나는 사대성품과 네 가지 파생된 물질을 “나누어 얻을 수 없는 (8원소) 기본물질(아위닙보가 루빠)”이라고 한다. 땅 성품이 있을 때는 응집성, 열성, 이동성, 색깔, 냄새, 맛, 영양소가 함께 있다.

색깔을 보면, 이것은 모든 물질이 일어날 때 항상 함께 일어난다. 그것은 오로지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경험된다. 그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아니다. 색은 단지 보이는 물질(루빠)일 뿐이다.

색깔은 서로 다른 조건 때문에 다양하다. 그러나 나타나는 어떤 색깔이든 간에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 감지되는 볼 수 있는 물성인 색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앗타살리나’ (2, 2권, 3장, 318)에서는 붓다의 대상에 대한 정의의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이 모든 물질은 눈에 부딪치는 특성이 있고 안식의 대상과 관련된 특성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식에서 드러나며 사대를 가까운 원인으로 한다.”

보는 대상은 사대성품을 가까운 원인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사대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대 중 하나의 특성, 예를 들면 견고함이나 따뜻함이 감지될 때 동반되는 색은 동시에 감지되지 않는다.

붓다(안식)이 일어날 조건이 된다면 붓다의 대상은 지각된다. 눈을 감으면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물성인 색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다. 눈을 감든지 뜨든지 “사물(thing)”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실제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

붓다의 대상인 색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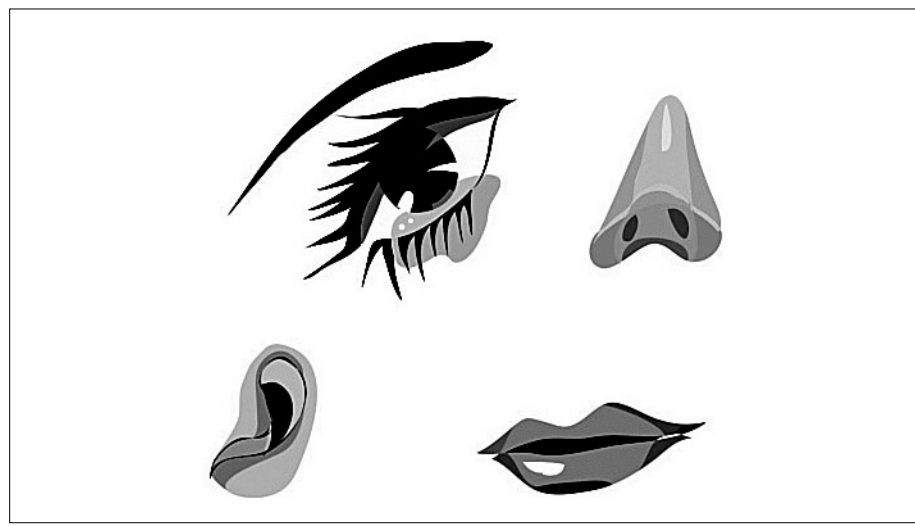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에만 주의를 기울이는데 익숙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것, 예를 들어 의자의 모양이나 형태를 감지할 때 우리는 그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다. ‘의자’는 눈의 감성(감각기관)에 부딪칠 수가 없다. 붓다는 ‘의자’를 보지 않고 단지 보이는 것만 볼 뿐이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른 순간에 일어난다. 내내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보는 순간도 있다. 그 순간에는 모양이나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직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이 한 대상을 경험하지만, 아주 밀착해서 연이어 또 다른 경험이 일어난다.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만일 색이 눈의 감성을 통해서 감지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한다면, 이러한 실재에 대한 바른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냄새는 8원소 기본물질들 중의 하나인 또 다른 물질이다. 몸 안이든 몸 밖이든 물질이 있는 곳 어디든지 냄새가 있다. ‘담마상가나’ (625)에서 유패하고 불유쾌한 여러 가지 냄새는 단지 코를 통해 지각될 수 있는 그냥 냄새일 뿐이라고 했다. ‘앗타살리나’ (2, 2권, 3장, 320)에서는 냄새를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모든 냄새는 코의 감성에 부딪친다는 특성이 있다. 비식의 대상이 되는 특성이 있고, 후각으로 드러난다...”

이것의 가까운 원인은 사대이다. 냄새는 홀로 일어나지 못하고 함께 일어나는 사대가 필요하다. 맛 역시 8원소 기본 물질들에 속하는 다른 물질들과 동반된다. 우리는 음식에 집착하여 맛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맛보지마자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단지 물질의 한 종류일 뿐인 맛의 실재에 관해서는 망각한다. 우리는 어떤 맛이란 것을 인지할 때, 실은 어떤 개념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혀를 통해서 지각한 실재인 맛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실재가 아닌 생각일 뿐이다. 영양소는 모든 물질이 일어날 때마다 함께 일어나는 물질의 한 종류다. 그것은 오직 마음의 문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담마상가나’ (§ 646)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를 계속 살게 하고, 먹어서 소화하여 흡수될 수 있는 밥, 죽, 밀가루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앗타살리나’ (2, 2권, 3장, 330)에서 설명하기를 식품, 삼켜진 덩어리(한입의 입안에 든 음식(까발린까로 아하라), 그리고 “영양소(오자)”가 있다. 삼킨 음식은 위장을 채워서 허기지지 않게 한다. 음식에 있는 영양소는 존재들을 유지하고 살아있게 한다. 조잡한 음식에는 영양소의 함유량이 적고, 정미한 음식에는 함유량이 많다. 변변찮은 곡식을 먹은 후에는 금방 배가 고프지만 버터 같이 정미한 음식을 먹으면 오랫동안 배가 부르다. (앗타살리나, 331)

‘앗타살리나’ (332)에서는 영양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 이 순간조차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하는 것은 자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조건 때문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물질들임을 깨달아야 ”

“...모든 맛은 혀의 감성에 부딪치는 특성이 있으며 실식의 대상이 되는 특성을 가지며, 미각으로 드러난다...”

이것의 가까운 원인은 사대이다. 맛은 홀로 일어나지 못하고 함께 일어나는 사대가 필요하다. 맛 역시 8원소 기본 물질들에 속하는 다른 물질들과 동반된다. 우리는 음식에 집착하여 맛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맛보지마자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단지 물질의 한 종류일 뿐인 맛의 실재에 관해서는 망각한다. 우리는 어떤 맛이란 것을 인지할 때, 실은 어떤 개념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혀를 통해서 지각한 실재인 맛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실재가 아닌 생각일 뿐이다. 영양소는 모든 물질이 일어날 때마다 함께 일어나는 물질의 한 종류다. 그것은 오직 마음의 문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담마상가나’ (§ 646)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를 계속 살게 하고, 먹어서 소화하여 흡수될 수 있는 밥, 죽, 밀가루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앗타살리나’ (2, 2권, 3장, 330)에서 설명하기를 식품, 삼켜진 덩어리(한입의 입안에 든 음식(까발린까로 아하라), 그리고 “영양소(오자)”가 있다. 삼킨 음식은 위장을 채워서 허기지지 않게 한다. 음식에 있는 영양소는 존재들을 유지하고 살아있게 한다. 조잡한 음식에는 영양소의 함유량이 적고, 정미한 음식에는 함유량이 많다. 변변찮은 곡식을 먹은 후에는 금방 배가 고프지만 버터 같이 정미한 음식을 먹으면 오랫동안 배가 부르다. (앗타살리나, 331)

‘앗타살리나’ (332)에서는 영양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특성에 관해서 말하자면, 단단한 음식은 영양소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은 (먹는 이에게) 물질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물질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가까운 원인은 삼켜진 덩어리이다.”

영양분은 쌀이나 다른 음식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위나 모래에도 있다. 그것은 어떤 물질에도 다 있다. 곤충은 인간이 소화시킬 수 없는 나무도 소화시킬 수 있다. 영양분은 몸이란 물질을 만드는 네 가지 요소 중의 하나다. 나머지 요소들은 업·마음·열이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에게 어머니가 먹은 음식인 영양분인 정수가 몸에 퍼지는 순간 영양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무리가 생겨난다. 그때부터 영양분은 일생동안 몸의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유지시킨다.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이 몸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는 영양분이 물질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쁜 음식이 피부를 거칠게 만드는 반면 비타민을 섭취하면 피부나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보인다.

집착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우리는 음식이 몸에 필요한 약이란 것을 종종 잊어버린다. 붓다는 비구들에게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의 음식을 권했고 더 이상은 먹지 말라고 했으며 먹을 때는 현명하게 잘 생각하라고 했다. (청정도론 1, 85) 비구는 반드시 자기가 받는 생필품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청정도론에 생필품(가사, 음식, 주거, 약)을 사용하는 바른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124)

“...가사 등을 받았을 때는 받은 자에게 허물이 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그것들을 단지 성품들로 보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어야 하며, 그것들을 사용할 때 이렇게 성찰해야 허물이 되지 않는다...”

비구들은 반드시 가사나 다른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 음식 혹은 약품을 단지 성품들로 보거나 혐오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음식을 혐오감의 대상으로 여기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음식은 조건 지어진 성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재가자에게도 먹을 때 알아차릴 하는 유용한 지침이 된다.

“사띠뻬타나 스타” (엄처경)의 주석서에 몸에 대한 알아차림(신념) 부분에 “먹고 마실 때 분명한 앎을 지닌다”는 구절이 있다. 음식을 삼킬 때 음식을 수저나 국자로 떠서 뱃속으로 내려가게 하는 사람은 없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바람 성품만 있다. 그럼 소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른을 울렁고 불을 지피는 사람은 없고 서서 요리를 하는 각각의 무더기만 있다. 열이 음식 덩어리를 소화시키는 과정만 있고, 막대기나 장대로 소화된 덩어리를 밀어내는 자는 없다. 단지 진동하는 과정(바람 성품인 움직임)에서 소화된 음식을 밀어낼 뿐이다.”

먹고 마시는 자야는 없으며 물질들이 다만 각기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물질이 일어나는지 사대성품과 형성, 맛, 냄새, 영양소의 네 가지 파생된 물질은 반드시 일어난다. 어리석음(무명) 때문에 우리는 소유물에 집착한다. 인생이 끝날 때 더 이상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순간조차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 순간도 머물지 않는 다양한 성품들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보석 같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에 집착한다. 하지만 눈을 통해서만 오직 보이는 대상인 색깔과 형성만이 있고, 감촉으로 만져서는 단단함이라는 물질만이 있을 뿐이다. 궁극적인 의미로 볼 때는 만져서 지각되는 돌의 단단함이나 보석의 단단함은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는 돌과 보석이 다른 가치를 가졌다고 알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념을 생각하는 조건들을 축적시켜 왔기에 실재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지 않는다. 소위 일컫는 보석이나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도 오래 지속하지 않고 즉시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재가자들도 자기 소유물을 즐기면서도 사물의 실재에 대한 이해를 개발할 수 있다.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삶은 오직 한 순간, 현재 순간만 존재한다. 붓다의 순간에 색의 세계가, 들음의 순간에 소리의 세계가, 접촉의 순간에 감촉 대상의 세계가 경험된다. 살아있다는 것은 실제로 한 순간에 하나의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분별론”에는 진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조약돌이나 자갈과 함께 보석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이나 몸의 다른 부분처럼 안의 땅 성품(견고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외적인 땅 성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외적인 땅 성품이란 무엇인가? 몸 밖에 있는 딱딱하고 거칠고 단단한 것은 무엇이든지 굳어지고 외적이고 움켜질 수 없는 철, 구리, 주석, 납, 은, 진주, 보석, 묘안석, 조개껍질, 돌, 산호, 은, 동전, 금, 루비, 여러 가지 원석, 풀, 나무, 자갈, 철그릇조각, 흙, 바위, 산 등...”

물질은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준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물질들의 노예가 된다. ‘상유타 니까야’ (2, 인연의 모음, 14장, 사대요소의 품, 34, 괴로움의 특징에 대한 경)에 사유타에서 붓다가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비구들이여, 만일 이 땅 성품, 물 성품, 열 성품, 바람 성품에 전적으로 괴로움만 있고 괴로움에만 떨어지고 괴로움에만 빠져들고 즐거움에는 빠져들지 않는다면 중생들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대가 각각 괴로움이 아닌 즐겁고, 즐거움에 둘러싸여 있고 즐거움에 젖어드는 한 그들을 추구하여 갈구하는 존재들이 마련이다.”

비구들이여, 만일 이 땅 성품, 물 성품, 열 성품, 바람 성품에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고 즐거움에만 떨어지고 즐거움 빠져들고 괴로움에는 빠져들지 않는다면, 중생들은 그것에서 몰라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대가 각각 즐거움이 아닌 괴롭고,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고 괴로움에 젖어드는 한 그들을 싫어하여 쫓아버리는 존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쁜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물질에 집착한다. 그러나 다치거나 아플 때는 혐오하여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그것은 우리 자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조건 때문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물질들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병원진단서 우울증 환자를 포함하여 환경,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가 증명된 프로그램으로서 우울증 환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프로그램 참가 가능)

프로그램 내용	일정
법화경 일일 독성	매일
묘법연화경 정근	매일
108배 수행	매일
일주일 점검	전문 상담을 통한 마음치유

**모집기간**  
2014년 2월 28일까지 (선착순 마감)

**교육기간**  
2014년 3월 9일 - 5월 25일 (12주)

**장소**  
기청사 : 양산 통도사에서 5분거리

**참가비** 12주 코스 15만원

**참가인원** 20명 제한 (인원 미달시 다음 프로그램으로 연기)

**상담자** 혜공 스님 (진행상담사 문의처 010-4616-5438)

대한불교영산종 기청사 (법화도량)

## 정체평형 일침요법

###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요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형(허리), 슬통형(관절염), 두통형(머리), 위통형(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형의 90%를 감속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침,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인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사여래도량  
**보금정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 2014년 흥익법패 강의 안내

본 대학에서는 스님들을 위주로 전통법패를 강의하고 소질이 있는 분을 발굴하여 법패단원으로 인정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스님을 꾸무고 계신분도 기초부터 공부하여 훌륭하신 큰스님을 인연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의 내용**

- ◆ 2014년 3월 31일 오후 3시 개강
-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5시  
▷ 바라춤, 나비춤
-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 목탁, 요령, 태징, 북, 기초, 조석예불, 사시예불
-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49재, 천도재, 방생, 시다림, 구병시식
-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일반인 기초예절법, 난 누구인가, ▶ 붓다를 찾아서, 천수경 해석, ▶ 불자님 같이하는 예불법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1873-83 효성빌딩 4층 (연수로 190 효성빌딩 4층 법지사)  
전화 : ☎ 051)852-0108 법지사 / 010-4466-3575 (강주 지효스님)

## 영남범음범패 제3기 학인모집

-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 ◆ 작법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 교육과정 : 6개월
-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 개강일시 : 2014년 2월 24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까지)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 문의처 : 010-5065-5690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교대학 범패원**